

(주)모비젠, 와이어리스 재팬 2019 참가...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IRIS)'와 무선품질 관리 응용 사례로 일본 통신 시장 공략

◆ 5G/IoT 시대를 대비하여 일본 통신 사업자 및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및 빅데이터 기반 응용 사례 전시관 운영

데이터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 (주)모비젠(대표 김태수, 고필주)은 29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무선기술 및 솔루션 전문 전시회인 '와이어리스 재팬(Wireless Japan) 2019'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와이어리스 재팬은 와이어리스 및 모바일 분야의 R&D와 엔지니어링, 세일즈와 마케팅을 위한 종합 전시회로 모바일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 더 나아가 비즈니스모델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모바일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한다.

(주)모비젠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의 빅데이터 솔루션인 '아이리스(IRIS)'와 빅데이터 기반의 4G/5G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무선 품질 분석 응용 사례(Minimization of Drive Test, 이하 MDT)'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이리스는 모비젠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기능 개선, 머신러닝/딥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사용자 정의 보고서 및 대시보드 기능, 무선 품질관련 빅데이터를 지도 상에서 분석 가능한 Map View 기능 등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운용자들은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엠시스템즈(Msystems)와 공동 개발을 진행중인 MDT 기술 개념을 도입한 빅데이터 기반 무선 품질 응용 사례를 선보인다. 이는 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의 빅데이터 고속 처리 및 분석 기술과 엠시스템즈의 무선기술 경험이 결합되어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이동통신사의 드라이브 테스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MDT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무선망 품질 측정 기술이다. 단말기를 대상으로 무선 커버리지 맵을 그리는 프로토콜을 내장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주기적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선망 품질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무선망 품질 측정 시 직접 측

정 장비를 싣고 도로를 운행했던 DM(Diagnostic Monitor)방식의 운용 비용 부담 및 리소스 과투자에 대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엠시스템즈(Msystems)는 모비젠과 같은 지란지교 패밀리사로서 무선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일본의 통신 사업자 및 서드파티 기업들과 활발한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모비젠은 일본의 통신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엠시스템즈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김태수 (주)모비젠 대표이사는 “한국의 3배가 넘는 1억 7천만명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한 일본의 경우, 최근 운용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품질 분석 솔루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비젠의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력과 엠시스템즈의 풍부한 무선기술 경험이 결합된 빅데이터 기반의 무선품질 분석 응용 사례를 통해 일본 통신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별첨]-회사소개

(주)모비젠의 역사는 2000년 회사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고객의 체감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하루에 수 천만 건씩 생성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10 여건의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모비젠은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수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AI 분야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운용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모비젠이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출시한 빅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리스(IRIS)’는 일일 수천억 건씩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탐색, 분석 및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토탈 서비스를 성능 저하 없이 제공함으로써, 페타바이트(PB) 수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고객들이 단시간내에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비젠은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코레일, 삼성 화재, 금융보안원, 전력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고객들의 비즈니스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

[PR] 지란지교시큐리티 전략기획부 박지선 대리 010-2766-0657 js_pr@jiran.com